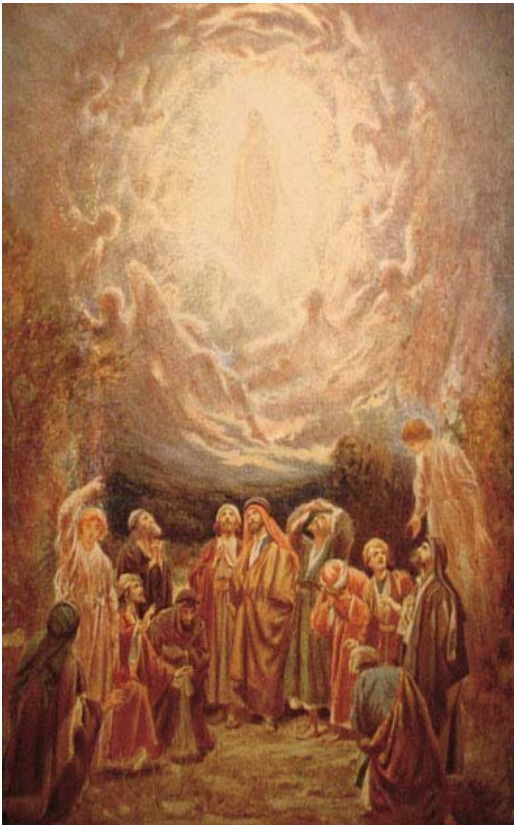


+ 찬미 예수님,



주님 승천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지 40 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심을 기뻐하는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오늘 하늘에 오르신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오실 것과 협조자이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 없이 마치 한바탕의 꿈이었던 것처럼 주님이 떠나신 후 하늘만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은지요?

승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과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시며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삶에서 하시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대로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부활의 핵심은 기쁨이라는 말도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은 바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총의 그 강한 힘을 통해

우리의 삶과 이웃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불화와 폭력으로 슬퍼하는 가정에서,

자식들의 걱정이나, 이웃들과 불화에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병실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신음하는 가난한 형제들의 생활고에서,

우리는 승천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행동은 거창한 말보다 더 호소력이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말 한마디

간단한 기도 한번이라도 실행에 옮긴다면

주님 축복의 손의 역할을 하고 큰 기쁨으로

다시 나 자신에게 되돌아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즐거운 한 주일이 되십시오

주님의 마지막 말씀도 지키고, 나 자신도 즐겁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토마스

<http://home.comcast.net/~kimjiman/>